

“전북 해양수산 예산 1%까지 올려야”

박재만 대표, “예산 0.8% 수준... 도내 귀어 인구 파악도 안돼... 어촌에 젊은층 유입 정책적 지원 확대를”

전북도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1%도 안되는 데다가 귀어 정책도 뒷전으로 하고 있어 전북도가 해양수산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원내대표(군산1)는 14일 열린 농축수산물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전체 예산 중 농림해양분야는 18%를 차지하고 있고, 임업·산촌분야 예산이 2.2%에 이르고 있으나 해양수산·어촌분야는 0.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최소한 해양수산분야 예산을 1%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군별 귀농귀촌인 현황 자료만 제출해 도내 귀어 인구는 아예 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귀어인구는 통계로 잡지도 않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최근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어업생산량이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34.3%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어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도내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나 어가 수는 2012년에 비해 3.1%가 늘어났다. 그러나 도내 어가 경영주 연령은 2012년에 비해 4~50대는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이 무려 86.2%가 증가하고 있어 도내 어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내 어촌에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거의 15년째 여객선 운항이 끊겨 주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비안도와 가력산착장

도선운항에 손놓고 있는 전북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승구 도 농축수산물식품국장은 “그 동안 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적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최소한 1%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내 귀어인 현황도 통계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조직 형태·시대 상황 못 따라가” “자유학기제 전용교실 마련하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학기제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의원들은 문화회관의 조직 형태가 구시대적인 구성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교육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교육문화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데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원교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본받고 이들 프로그램 구성·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남원교육문화회관·분관이 타 문화회관보다 장애인·다문화가정 즉,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텃밭농업 특화 학생토요수업교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 지역민들로부터 적극 호응을 받고 있어서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자유학기제 전용교실을 마련해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계획서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조차 하지 않아 자유학기제 의미가 퇴색됐기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양용보(전주8) 의원은 “교육문화회관 조직 구성이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대적 교육현실에 맞는 조직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현 교육문화회관의 조직체계로는 정원을 채울 수 없어 정원이 항상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문화회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중고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중고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도세 결손처리 과다·과오납 등 징수행정 엉터리

허남주 의원, “결손처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 징수한 세금이 1만313건”

전북도는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과다.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하고, 잘못 부과한 과오납액이 2017년도 현재 2만 9,471건에 41억7,100만원에 이르는 등 도세 징수행정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전북도의회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치행정감사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62건에 34억7,600

만원에 이르며, 결손처분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무 재산으로 되어 있는 등 낯장 징수행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한 세금이 1만313건에 10억800만원에 이르러, 부실한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2017년도 현재 2만9,471건에 41억 7,1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하여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고 행정

납비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3만8,413건에 51억6,000만원, 2015년도에는 2만9,393건에 54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징수행정에 대한 무능을 질타했다.

허남주 의원은 “결손처리 후에 재산조회하고 징수했다는 것은 징수확보에 최선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안일한 징수 행정을 꼬집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총체적 부실징수행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22일 개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사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재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실시계획 등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달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 이들은 또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도 처리했다.

인사청문특별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 5명씩,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바른정당 1명 등이다.

민주당은 한영재 의원을 간사로 강병원·김해영·박주민 의원이, 한국당은 윤상직 의원을 간사로 권석창·송희경·신보라·이양수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송기석 의원을 간사로 이용주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유익동 의원이 참여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특별위가 청문회 등을 거쳐 심사를 마친 뒤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3년 부산지방에서 입국해 30여년 넘게 판사생활을 해 오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서 정부의 대응이 불성실했다고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올 1월31일 이래 열 달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뉴스



민주당,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총원 예산 확보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현장 공무원 총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람예산, 국민생활안전분야 정책간담회에서 “현장 공무원 17만 4,000명을 총원해서 현장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시키자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현장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기재부, 행안부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성장과 향후 총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총지출 대비 8% 인건비 지출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를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로 돌려주고 공무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에서 공무원을 총원하면 인건비로 수백조원이 든다는 등 숫자 장난을 한다”면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로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생활 안전분야 대국민 서비스분야 공무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근찬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는 “통계에 의하면 과거 5년 동안 한군자 인구조조정에 경찰 자살률이 100% 높다”면서 이번엔 증원되는 경찰관은 지구대, 파출소 현장인력이라며 증원을 요구했다. /뉴스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강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 만남 -10.28(토) 호암 중점용 / 11.11(토) 헌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7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윤전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